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42호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

금메달 따면 군대 안 가도 될까?

오경민 경향신문기자

[김세훈의 스포츠IN]

장애인 선수들, 그들 입장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김세훈 스포츠경향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 지도자 명단 공개

선수 괴롭힌 지도자 명단 공개 '0건'...문체부 "법이 모호해서"

송우영 JTBC 기자

문화연대 프로젝트

'언니들'의 배구 수업, 호호 체육관을 아십니까?

신선영 시사IN 기자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 7일간의 열전 마무리...MVP 황선우

이혜진 스포츠월드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금메달과 '병역 혜택'

-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남성 선수에게 '아시아에서 1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 이번 대회에서는 42개의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이 중 축구 대표팀 19명·야구 대표팀 20명을 비롯해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 선수들은 이번 대회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됐어요.
- 아시안게임이 끝날 때마다 선수들의 '병역 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사실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입니다. 체육요원이 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도 받아야 하고, 34개월 간 544시간의 '공익복무'도 해요.
- 대체복무인데 '면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공익복무'의 성격 때문입니다. 체육요원의 경우 ①선발 당시의 체육종목의 선수로 활동하는 것 ②대학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하는 것 ③체육지도분야에서 종사하는 것 ④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코치·감독 등으로 종사하는 것 등이 공익 복무에 포함돼요. 사실상 체육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 경력 단절이 없고, 출퇴근을 할 수 있고, 수입에도 영향이 없는 등 현역 군 복무와 다른 점이 많아 매년 관련 대회가 막을 내릴 때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1. 입대는 곧 은퇴

남성 선수 1만7418명을 13년간 추적 관찰해 군 복무 형태에 따른 선수 생활 복귀 양상을 살펴본 논문 <엘리트 남성선수의 군 복무별 현업복귀율과 선수경력의 비교분석>(2020, 이은 외 3명)을 보면, 선수들이 체육요원을 목표로 하는 이유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가 된 선수 10명 중 9명(93.3%)이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8명 중 1명(12.5%)만이 선수생활을 이어갔어요. 7명은 제대 이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현역으로 군 복무한 선수들의 평균 선수 경력은 2.46년으로 다른 형태로 복무한 선수들보다 현저히 짧았습니다. 면제를 받거나 국군체육부대·경찰청 체육단에서 복무한 선수, 사회복무역(소위 공익근무)을 지낸 선수,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의 경력은 약 10년에 걸쳐 이어진 데 반해서요.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은 일반인들도 겪는 것이지만 스포츠선수의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진로선택에 있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군입대로 인한 경기력 감소 및 경력단절은 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중략)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병역의무를 최대한 연기하여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입대와 함께 은퇴를 고려한다.” 논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아주 소수 종목만 운영하고, 연 1회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인원을 보충합니다. 경찰청 체육단은 의무경찰이 폐지되면서 함께 사라졌고요. 체육요원은 선수생활을 유지할 거의 유일한 방도인 셈입니다.

2. 줄이고 고쳐도 이상한 '병역 특례'

체육요원 제도는 유신 시대인 1973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올림픽 3위는 물론 아시안게임 3위, 유니버시아드 3위, 세계선수권 3위 안에 들면 '병역 특례'를 줬어요. 한국체대 졸업성적이 상위 10%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선수를 육성하던 시절입니다.

곧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대회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고,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를 차지해야만 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체육요원 제도는 그때그때 대중의 요구나 국가에 필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국가대표팀에 '깜짝' 혜택을 준 게 대표적입니다. 당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대표팀에게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컸어요.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에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2006년 월드컵베이스볼클래식(WBC)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국가대표팀이 4강에 올라 화제가 되자 여당과 정부가 이에 편승해 갑자기 대표팀에게 특례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비인기종목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과의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월드컵과 WBC는 특례 대상에서 이내 제외됐습니다.

다음 장 계속

‘단체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조항도 논란을 일으키자 사라졌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일본과의 3·4위전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가 확실시되자, 홍명보 감독은 경기 종료 4분을 남겨두고 아직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병역 특례를 모두가 누리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외에서 조롱거리가 되자 이 조항도 2020년 삭제됐어요.

김성배 국민대 법대 교수는 “예술·체육요원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가능하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나 부차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신성한 국방의무를 변화시키고 즉흥적으로 시혜적 혜택을 남발하고 사회적 무리가 생기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비계획적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합니다.

3. 메달 따면 개선장군?

체육요원의 의미는 병역법 제2조 10의3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문화창달’과 ‘국위선양’. 알 듯 말 듯 합니다.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 체육요원 제도가 만들어지던 당시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의 <스포츠 코리아 판타지>를 참고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타이, 필리핀, 북한보다 못하던 1972년, 유신체제가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세기체조’ ‘국민체조’ 등을 만들고 “체력은 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해 8월, 서독 뮌헨에서 제20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남한 유도 미들급 오승립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런데 사격에서 북한 리호준 선수가 금메달을 따냅니다. ‘해방 후 첫 금메달’을 남한보다 북한이 먼저 품에 안았습니다. 북한은 이 올림픽에서 108개국 중 22위에, 한국은 33위에 올랐습니다. 리호준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적의 심장을 겨누는 심정으로 쏘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체육 병역 특례 제도가 생겨납니다.

4년 뒤,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양정모 선수가 한국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음날 각 신문 1면은 올림픽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면에 <태극기 아래 첫 금메달, 레슬링 양정모 민족의 숙원 이룩> <금메달이 걸리던 순간 애국가 퍼지자 눈물만> 등 기사를 실었어요. 일부를 보실까요.

“중앙에 태극기가 게양되면서 몽고기·성조기가 호위하듯 따라 올라갔다. 애국가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연주되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부동자세로 태극기를 주시하던 양 선수의 양 볼에 어느새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옆자리에서 지켜보던 김택수 체육회장, 최재구 단장 등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틀 뒤 귀국한 선수들을 인터뷰한 기사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격전장의 병사처럼 내 나라를 빛내겠다는 선수들의 사명감과 정신력이 몬트리올 하늘에 태극기를 잇달아 올리게 한 원동력이 됐다.” 선수들은 국가대항 ‘스포츠 전쟁’의 병사였고, 메달을 따면 ‘개선장군’이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지요. ‘국가주의’ 시대의 유물인 ‘국위 선양’은 이제 의미가 많이 바랐습니다.

4. 예술·체육요원 논위 ‘제자리 걸음’

50년 전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체육요원 제도는 매번 도마 위에 오릅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당시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TF까지 만들어졌어요. ‘체육요원 완전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선 TF는 이런 결론을 2019년 내놨습니다.

“제도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다소 싱거운 결론입니다. 선수들의 입상으로 “국민사기가 진작”된다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진단이고요.

지난해 BTS의 입대를 앞두고도 병역법 개정이 거론됐습니다. 체육요원과 함께 관리되는 예술요원은 순수예술 분야 대회 입상자만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중문화도 여기 포함할지 논의한 거죠. 국회는 결국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매번 문제가 불거지지만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이렇다 할 개선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이후 또 체육요원 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자 지난 10월13일 이기식 병무청장이 관련 TF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등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요. 과연 5년 전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음 장 계속

1. 병력 손실 영향은 미미

국방부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대체복무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제도니까요. 하지만 산업기능요원과 석사 전문연구요원 등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예술·체육요원 제도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어요. 사실 예술·체육요원의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1973년 제도 시행 이후 2021년까지 체육요원 편입 인원은 총 979명이에요. 매년 약 20명 정도입니다. 매년 20만명가량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을 고려하면 0.01%가 채 안 되는 수치이고요. 예술요원을 합쳐도 40명 규모라, 병력 손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모두의 사정을 고려하는 복무제도

하지만 스타들이 현역 군 입대를 하지 않을 때,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매년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역 군 입대를 하는 이들과의 ‘형평성’은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할까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등에서 근무한 김신숙씨의 책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무라는 명목하에 일률적으로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남성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과하다면 이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그 부담을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다수의 제대군인 남성이 받은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체육요원의 장점을 현역 군 복무에도 적용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수가 아닌 남성도 경력 단절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군 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남성들이 군대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가장 응답이 높았던 것은 “중요한 시기의 인생 공백(48.2%)” 였어요. 그다음으로 응답이 많았던 항목도 ‘인생 공백’의 파생 효과였습니다. 응답자들은 “취업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16.0%)” “학업능력의 저하(15.2%)” 등이 군 복무에 따른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여겼습니다.

체육요원 제도와 더불어 징병제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체육선수든, 체육선수가 아닌든 군대가 곧 ‘인생의 공백’이 되지 않도록 복무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위 연구에서 남성들은 “자기계발을 위한 자유시간 확보” “제대 시 기업과 연계한 취업알선” “사회복귀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3. 스포츠, 국위선양과 경기장을 넘어서

“운동선수의 병역문제 관한 쟁점을 ‘국위선양’에 두기보다는 평생 동안 운동만 해왔고 앞으로도 운동으로만 살아야 하는 체육특기자들을 중심으로 ‘개인손실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은 체육요원 관련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연구에서 체육요원 확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은퇴 후 무직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체육선수에게 입대는 곧 은퇴인데, 은퇴는 곧 무직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대한체육회가 국회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비슷합니다. 무직 41.9%. 청년실업률(8.9%)의 4배가 넘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실업은 단순히 군대의 문제는 아닙니다. 배경에는 학생 때부터 다른 과목 수업도 듣지 못한 채 오로지 운동에만 매진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윤수 스포츠평론가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국위선양’을 넘어서 선수들을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나라 스포츠는 지난 70년대에 ‘국위선양’과 ‘대한건아’라는 과잉 열정을 기반에 두고 발전해 왔다. 상명하복의 군대적 편제와 강압적인 위계질서가 오랫동안 지배해 왔는데, 몇 차례의 계기(특히 2002한·일 월드컵의 히딩크 신드롬)에도 이 폭력적 관계는 관행이니 성적이니 대안부재니 하는 말을 핑계 삼아 여전히 완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폭력 관계는 개인의 창발성이나 자유의지 대신 강력한 통제와 동원의 방식으로 유지되며 그 최상위 이데올로기는 ‘국위선양’이라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다. 비리와 폭력은 바로 이 낡은 시스템의 상처다.”

정 평론가는 개발 시대부터 유지돼 온 ‘국위선양’ 메시지가 스포츠의 가치를 ‘극기’ ‘승리’ 등으로 좁혀 선수들을 경기장 안에 고립시킨다고 말합니다. 선수들이 메달만을 위해 육성되며 성적 지상주의와 폭력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는 “스포츠를 경기장 밖으로 꺼내야 한다”며 “이는 스포츠와 사회의 다중적 교류, 그에 따른 문화콘텐츠 발현 및 스포츠 산업의 확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0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에서 ‘국위선양’이 삭제됐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체육이 과거 개발시대의 국위선양의 도구로 기능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체육의 목적이 국위선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선수를 둘러싼 문화와 제도도, 국가가 아닌 ‘개인의 행복과 자긍심’을 중심으로 차례차례 재편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역제도는 물론이고요.

장애인 선수들, 그들 입장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스포츠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영웅”이라며 추켜세워왔다. “비장애인대회에서는 메달리스트가 영웅이지만 장애인대회는 선수들이 모두 영웅”이라는 말도 썼다. 기자들은 “장애를 극복했다”, “장애 속에 기적을 이뤘다”는 ‘그럴듯한’ 표현과 함께 장애가 생긴 아픈 과거사와 고통스런 과정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2002년부터 이번 항저우까지 6회 연속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베테랑 유병훈(51·휠체어 레이싱)은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드러났지만 그때에는 선수들이 잠시라도 관심을 받는 것으로도 족했다”고 회고했다.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22일 개막해 일주일간 벌어진다. 기사들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 선수들 스토리도 자주 소개될 것이다. 장애인 종목에 대한 관심도, 이전처럼 다소 한시적이겠지만, 어쨌든 높아질 것이다. 장애인 스포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상처와 오해 없이 장애인과 장애인 선수들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우선, “장애를 극복하다”는 말은 삼가자. 장애인들은 수긍하지 않은 대표적 표현이다.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평생 불편함을 감수하면 살아하는 것이다. 장애가 생긴 과정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굳이 아픈 과거를 ‘자세히’ 묻지도,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은 게 어떨까. 그냥 운동선수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장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정상, 비정상은 좋고 나쁨, 바르고 틀림이라는 가치를 지닌다. 장애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다. 장애우라는 말도 더 이상 쓰지 않는다. 병어리, 외팔이, 절름발이 행정, 눈먼 돈, 눈뜨장님,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도 지양해야 하는 표현이다. 대부분 순우리말이지만, 관습적으로 신체 결손을 희화한 표현으로 쓰인 탓이다. 고민 없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차별과 비하 의미를 담고 고정관념을 심화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말도 불편해 하는 장애인들이 적잖다. 그 표현 자체가 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다. 범칭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표현은 괜찮지만, 그걸 장애인에게 꼭 찍어 쓰는 건 잘못된 게 아닐까. 배려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인간에 필요하다.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장애인 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한 대우, 특별한 대접, 아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선수로서 봐달라는 것, 그게 전부다. 과도한 칭찬은 이들을 마치 이상한 존재인 양 타자화(他者化)하는 동시에, 장애인에게 무관심한 비장애인이 자위하려는 행동이 될 수 있다.

항저우 파견 기자들은 조심스럽게 취재한다. 기사 요건상 불가피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장애가 생긴 과거사를 가능한 한 줄이고, 감동이 적더라도 건조하게 기사를 쓰려고 한다. 아픈 과거, 숨기고 싶은 개인사가 대중에게 과도하게 드러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 기사들이 ‘재미와 감동이 적어도’ 이해하고 읽어주기를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이다. 최소한 잠재적으로 예비 장애인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궁극적으로 같다. 이를 냉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하면 장애인을 보는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친구처럼, 이웃처럼, 너무 동정하지도, 너무 과장하지도 말고, 조용하고 꾸준하게 함께하는 게 똑같은 사람들끼리 더불어 사는 삶의 전부가 아닐까.

선수 괴롭힌 지도자 명단 공개 '0건' ... 문체부 "법이 모호해서"

[앵커]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가 선수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게 드러나고 감독으로부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며 철인 3종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등지자 정부는 이렇게 선수 괴롭히다 유죄 판결 받는 지도자들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새로운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시행된 지 2년 반이 다 돼가지만 단 1명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에도 남아 있는 다른 선수들을 걱정했습니다.

[최영희/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2020년 7월) : 앞으로 이 땅에 숙현이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운동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도 코치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여론이 들끓자 2021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에 새로운 법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선수를 괴롭히거나 스포츠계 비리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지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문체부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된 지도자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총 1695명이 범죄로 지도자 자격이 취소됐지만,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조재범 코치나 최숙현 선수를 괴롭혀 징역 7년을 받은 김규봉 감독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뒤늦게 법이 모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체육계 인권 침해'나 '스포츠 비리'에 어떤 범죄가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유죄도 '금고 이상의 형' 등으로 구체화돼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더 명확한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호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정부가) 그 뒤로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요청하거나 정부 입법을 하거나 여러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디자인 송민지]

‘언니들’의 배구 수업, 호호 체육관을 아십니까?

땅을 보며 일하던 ‘언니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손목이 벌겍게 부어오를 정도로 힘껏 쳐낸 공들이 바닥에서 튀어 올랐다. 10월20일 서강대학교 체육관에서 여성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호 체육관’ 배구 수업이 진행됐다.

호호 체육관은 문화연대 대안체육회에서 여성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에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기치로 스포츠에서 소외된 노동자,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를 초대했다. 이들의 스포츠 권리를 찾고 사회적으로 인식시키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2020년 6월 스포츠계의 고질적 병폐에 맞서 싸우다 세상을 떠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기획이 시작되었다. 그 사건 이후 변화의 흐름이 일어났지만 이내 사그라드는 듯했다. 문화연대는 ‘스포츠 정책이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과 같은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기로 했다.

첫 대상자는 청소노동자들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프로젝트팀은 학교 시설 관리자, 학생, 외주업체와 협력했다.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쓸던 노동의 장소가 운동의 장소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호호 체육관의 첫 번째 수업은 요가로 시작했다. 25명이 신청했다. 2022년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매주 목요일 40분씩 진행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2023년 3월에 요가 2기 수업으로 이어졌다. 아줌마, 어머니, 여사님으로 불리던 호칭은 호호 체육관 수업에서만 ‘언니’로 통일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을 더 많이 움직이는 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2023년 3월24일, 서강대 체육관에서 배구 수업이 열렸다. 점심시간에 모인 10명의 시선은 바닥이 아닌 하늘을 향했다.

2기 배구 수업은 10월13일 금요일에 시작됐다. 포항 배구 실업팀을 맡고 있는 김현주 감독이 2기 수업을 맡았다.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도움을 준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와 교지 <서강>에서 활동하는 학생들 5명도 참가했다. 지난 1기부터 배구 수업을 듣고 있는 전창현씨(62)는 다른 신입생들보다 자세가 좋았다. 서강대에서 10년째 근무하는 그는 “워낙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점심시간에 휴게실에 앉아 있으면 갑갑했어요. 지금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이 가벼운 느낌입니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다음번 프로그램에 자신이 좋아하는 댄스 수업이 생기길 바라고 있다.

호호 체육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문화연대 박이현 활동가는 “매번 수업 현장에서 느껴지는 청소노동자들의 에너지에 놀란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호호 체육관에 참가하길 희망하는 그는 “스포츠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스포츠가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호호 체육관 2기 배구 수업은 12월22일까지 진행된다.

전국체전, 7일간의 열전 마무리.. MVP 황선우

국내 최대의 스포츠 종합경기대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9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7일간의 대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화합·감동·희망·안전을 목표로 개최된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17개 시·도의 총 49개 종목(정식 47, 시범 2) 2만9955명의 선수단(선수 2만8477명, 임원 1478명)과 미국, 일본, 독일 등 18개국 1458명의 해외동포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열전이 치러졌다.

대회 기록으로는 한국신 8개, 한국주니어신 4개, 한국주니어타이 2개, 대회신 78개, 대회타이 4개 등 총 96개의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다관왕의 경우 7관왕 1명, 5관왕 4명, 4관왕 13명, 3관왕 30명, 2관왕 169명을 배출하였다.

시도별 종합순위로는 경기도가 메달 합계 424개, 총 득점 6만4856점을 기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가 5만3042점으로 종합 2위, 경상북도가 5만1445점으로 3위에 올랐다. 재외동포 종합순위로는 재미국대한체육회선수단이 1위, 재일본대한체육회선수단이 2위,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선수단이 3위를 차지했다. 지난 대회 성적과 비교하여 월등히 성적이 향상된 시·도에 수여하는 성취상은 전라남도(1위), 제주특별자치도(2위), 충청남도(3위)에 돌아갔다. 또한 대회 기간 중 가장 모범이 된 선수단에 수여하는 모범선수단상은 강원특별자치도선수단이 선정됐다. 대회기간 중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한 단체에 수여하는 회원종목단체 질서상은 대한스쿼시연맹(1위), 대한근대5종연맹(2위), 대한자전거연맹(3위)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선수(MVP)에는 대회 5관왕을 달성한 수영 황선우(20·강원도청)가 한국체육기자연맹 소속 기자단 투표에 의해 선정됐다. 지난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이하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이며 총 메달 6개(금 2, 은 2, 동 2)를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수영의 '황금세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황선우는 지난 102회·103회 대회에 이어 3년 연속으로 MVP에 등극했다. 3연속 MVP는 전국체육대회 역사상 최초다. 올해 체전에서는 자유형 100m·200m, 계영 400m·800m,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황선우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일반부로서 첫 5관왕을 차지하고, 체전 최초로 3년 연속 MVP에 오른 것이 매우 뜻깊다”고 전하며,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선발전을 비롯하여 파리하계올림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던 선수들이 다수 출전하여 국민에게 스포츠를 통한 기쁨과 감동을 전했다.

항저우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르며 대한민국 선수단 MVP로 선정됐던 수영 김우민(22·강원도청) 선수는 자유형 400m·1,500m, 계영 400m·800m에서 1위를 차지, 4관왕에 올랐다. 마찬가지로 항저우아시안게임 3관왕이자 MVP였던 양궁 임시현(20·한국체대)은 이번 체전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수영 김서영(29·경북도청)은 개인혼영 200m·400m, 계영 400m·800m 혼계영 400m에서 다섯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5관왕에 등극했다.

대회 7관왕에는 체조 문건영(17·광주체고)이 올랐으며, 철봉, 평행봉, 안마, 링, 마루운동, 도마, 개인종합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체조의 장밋빛 미래를 예고했다. 고교 유망주인 수영 최강인(17·울곡고)과 허연경(18·방산고) 역시 나란히 5관왕에 올랐다. 이처럼 많은 선수의 활약으로 차후 대회는 물론,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역대 최다 인원인 2만9955명이 참석한 대회로,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아울러,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에도 힘썼다. 대한체육회에서는 대회 중 ESG경영본부·스포츠영웅·스포츠정보화·스포츠클럽·스포츠인권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10월 13일 스포츠인권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스포츠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ESG캠페인도 진행하였다. 친환경(Environment) 대회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체육회, 49개 종목단체는 경기 기록 전산화, No 플라스틱 운동 등 환경보호 실천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참가자 안전(Social)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단체별 자체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였다. 공정성 보장(Governance) 차원에서 33개 종목 경기 영상을 촬영하였고, 21개 종목 119명의 상임심판이 활약했다. 또한 선수단 ID카드와 경기장 곳곳에 승부조작 방지 메시지가 담긴 한글 팝아트(이대인 작가 제휴) 포스터를 부착하여 공정한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승부조작 경각심을 생생히 전달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많은 국민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열린 스포츠 축제이자, 역대 최다 선수단이 참가하여 국내 스포츠의 내실을 다지고 넓어진 스포츠의 저변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깊은 대회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선수,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스포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선배 김연경 저격하던 이다영, 두 장의 사진 올리며 남긴 한마디

<https://www.mk.co.kr/news/society/10855245>

러 "올림픽 중립국 참가는 수치" 반발...IOC "현장 어긋 결과"(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0133651080?input=1195m>

사우디아라비아, 2035년 여자월드컵 축구 유치에도 나설까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0022300007?input=1195m>

사노피, 풋살로 홈리스 자활 돕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17511249?OutUrl=naver>

교실 밖 체험학습으로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나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4471>

6km 달리면 아프리카에 식수 기부... 월드비전 'G6K 러닝'에 5000명 참여

<https://futurechosun.com/archives/81184>

문상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장애인 스포츠 활동과 권익보호 앞장...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762>

'스포츠는 인권이다'...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실, 직접 제작한 유니폼 입고 경쟁 현장서 '상호 존중' 캠페인 눈길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5679>

초고도 문명사회에서의 스포츠 가치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21586&call_from=naver_news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